

환경오염, 내 탓이오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카톨릭 교계에서 신뢰회복운동으로 내건 「내 탓이오」이란 스티커를 붙인 차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가히 교통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서울등 대도시의 교통체증이 교통행정당국의 무능과 잇속에만 급급한 운수업자의 무리한 증차, 길을 꽉 막아 놓은 정도의 운전미숙과 조급함만을 탓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일진대, 여기에 책임을 박는 양심의 외침이 바로 「내 탓이오」가 아닐 수 없다.

나도 차를 몰고 길바닥으로 나왔으니 내 스스로가 교통체증 유발요인이라는 自省이 뒤따르지 않고는 「내 탓이오」하고 차동쪽에 붙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의 실마리를 교통과 관련한 「내 탓이오」양심으로 풀고 들어갔지만 요즘 나라꼴을 보면 사실 「내 탓이오」라고 크게 외쳐야 할 사람들은 딱한쪽 혼자 먹겠다고 싸웠던 노회하고, 낫두껍고, 명칭한 세 사람과 세 사람탓에 손쉽게 떡을 집게된 耳大人(흔히들 귀가 큰 사람이라고 하기에)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내 탓에 단식하고 내가 무릎 꿇고 들어오니 단식풀고, 내가 내탓이라며 단식하니 마지못해 무릎꿇고, 못된 내놈이 국민들 괴롭히고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니 전쟁하겠다고 겁주는 내 탓



李王敦
(MBC·사회부기자)

뿐인 정치판에서 언제 「내 탓이오」가 외쳐질런지 이제 말머리를 돌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보자면 지금까지의 환경오염 주범논쟁에서는 오로지 내 탓 밖에 없었다.

대기오염도 배불뚝이 사장놈 공장굴뚝 탓이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탓이오, 아니면 달동네 연탄 탓에다, 언론이 씹어대도 10년묵은 오징어보다 질기디 질긴 환경공무원의 무사안일 탓 뿐이었다.

수질오염 역시 자기공장에서 만든 식품은 제 가족에게는 안 먹이는 파렴치한 식품회사 사장놈 탓이오, 자기 공장이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잡힌 생선회는 안 잡수신다는 섬유공장 사장놈 탓이오, 게울러 빠진 아낙들이 손ტი기 싫다고 빨래비누 대신 독성세제를 마구 쓴 탓에다가 생수만 잡수시는 사장족동이 즐겨찾는 골프장의 농약 살포 탓이었다.

모든 환경오염은 내 탓이오다. 진정 그럴까? 그런데 내 식탁에 쌀밥 한사발이 오르기가 얼마나 많은 농약이 뿌려졌으며, 내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에서 뿜어낸 오염물질은 얼마나 될런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도 익숙한 우리이기에 너무도 쉽게 나만은 예외일 수 있다는 암채짓을 서슴지 않게 됐고, 그래서 산과 들에 쓰레기가 쌓이고, 하천에서 버젓이 세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환경보전에도 「내 탓이오」 외침이 터져 나와야 한다.

덜 먹고, 덜 버리고, 덜 나돌아 다니는 절제가 「내 탓이오」에서 시작돼야 한다.

내가 바로 환경오염 유발요인이라는 自省이 뒷받침될 때 쾌적한 환경이 앞당겨 달성되지 않을까?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한 갖가지 구호와 수칙등이 수없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환경오염 내 탓이오」라고 맨앞에 내세우고 시작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카톨릭 교인도 아닌 사람이 「내 탓이오」운동이 환경보전에 서도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자니 웬지 쑥스럽지만,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유발요인이라는 自省이 서급한다는 생각에서 이같은 제언을 해 왔다.